

# “대중 곁으로 뽀짝...우리들만의 콘서트 열어요”



광주 최초 힙합 기획사



## ‘NOP’

### 화가 겸 DJ 이조흠 중심

### 언더 활동 뮤지션들 명처

지역 언더 뮤지션들의 음악 환경은 녹록치 않다. 공연장 등 기반이 부족해 실력 있는 뮤지션들도 자신들의 음악을 자유롭게 선보일 수 있는 무대가 없어서다. 무대에 올라도 인지도가 낮은 언더 뮤지션들이 관객들에게 어필하기는 쉽지 않다. 밴드와 달리 힙합을 하는 뮤지션들은 더욱 힘들다. 하지만 지난해 케이블TV에서 방영된 래퍼 발굴 프로그램인 ‘쇼미더머니’ 등이 인기를 끌면서 힙합이 대중에게 한발짝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됐다.

감성 힙합 레이블 ‘NOP’는 광주 최초의 힙합 전문 기획사다. 광주에서 힙합으로 교류하던 뮤지션들이 명처 지난 2013년 12월 만들었다. 단순한 언더그라운드 활동에 멈추지 말고, 정식으로 음반을 발매하고 ‘프로’로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싶어하였다.

화가 이조흠(33)씨가 대표를 맡아 중심을 잡았다. 이씨는 작가 활동과 함께 대학 때부터 DJ로 활동해오고 있다. 그리고 오랫동안 언더그라운드 활동을 해온 KISS THE RAIN(27), STAY TRUE(25), Maxipub J(23), 물소(23)가 가족으로 합류했다. 동구 서석동에 있는 오래된 한옥에 사옥도 마련했다.

“음악 하는 동생들이랑 교류하고 만나면서 이 친구들이 좋은 재능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자신들의 음반을 발매하고, 유통시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점이 항상 아쉬웠어요. 광주는 워낙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 그런 방안들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음 맞는 동

생들이랑 뭉치게 된 것이죠.”(이조흠)  
‘NOP’는 음악에 대한 가치관이 맞아서 시작된 레이블이다. 아직까지는 상업적 성공보다는 감성 힙합이라는 장르에 대해 서로의 가치관을 공유하면서 배워나가고 있는 단계다. 서석동



‘falling in the sky’



‘Draming! Thinking? Talking.’

### KISS THE RAIN, STAY TRUE, 물소 등 합류

### 동구 서석동 한옥에 사옥 마련해 활발한 활동

### 멤버들 앨범 잇따라 발표 ... 멜론 등 음원 사이트에 공개

에 사옥이 마련되면서 지역에서 힙합을 하는 동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환경도 만들어졌다. 알파벳 순서에서 따온 ‘NOP’라는 이름도 이어주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레이블을 만들고 나니 멤버들에게는

프로의식이 생기기 시작했다. 확실한 목표 지점이 생긴 것이다. 지난해 초부터는 ‘NOP’의 결과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몇곡의 싱글 앨범을 멜론 등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지난해 말에는 막내 래퍼인 물소가 ‘NOP’ 최

들이 나오고 있으니 뿌듯합니다. 음악 하는 것을 멋으로 생각하고 과시하려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멤버들에게 음원을 만들어 발표하는, 본질적인 것을 하는 뮤지션이 되자고 말하곤 합니다. 언더 그라운드에서 활동하는 뮤지션들의 경우 다른 사람들의 곡에 가사를 새로 붙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정식 음원으로 발표할 수 없거든요.”(이조흠)

물소의 EP 앨범 발표가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멤버들의 EP 발표가 잇달아 예정 있다. KISS THE RAIN이 이달 중에 새로운 앨범을 내고, STAY TRUE도 다음달에 EP를 발표한다. 상반기 중 Maxipub J의 앨범도 계획돼 있다. 멤버 모두의 EP가 완성되면 작은 규모의 콘서트를 여는 것이 가장 먼저인 이씨의 꿈이다.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수입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지금까지 발표한 싱글 음원들로는 수입에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함께하는 동생들이 당장의 흥행보다는 아티스트라는 자부심을 갖고 하는 겁니다. 묵묵하게 작업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꾸준히 음악을 공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의 곡을 선보일만한 무대가 많이 없었어요. Maxipub J의 앨범까지 나오면 이제 저희의 곡만으로도 무대를 충분히 꾸밀 수 있습니다. 유료 콘서트를 열어볼 계획입니다. 그전까지 곡 작업에 더 집중해서 돈이 아깝지 않은 무대를 선보여드릴게요.”(이조흠)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광주시향 ‘재미있는 20세기’

## 10일 빛고을시민문화관 ... 더블베이스 성민제 협연

지역에서 더블베이스 협연 무대를 보는 건 흔치 않는 기회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이 더블베이스 연주자 성민제를 초청, 공연을 갖는다. 10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

이현세 상임지휘자가 지휘봉을 잡은 이번 공연의 주제는 ‘재미있는 20세기’다. 베토벤 등 낭만파, 고전파 음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주 기회가 적은 20세기 작곡가들의 작품을 집중적으로 듣는 시간이다.

첫곡은 레스피기의 ‘고풍적 아리아와 춤곡 모음곡 1번’이다. 이어 페르트의 ‘현악기와 타악기를 위한 형제들’을 들려준다.

성민제의 협연곡은 쿠세비츠키의 ‘더블베이스 협주곡 3번’이다. 성민제는 2006년 만16세에 세계적 권위의 슈페르거 더블베이스 국제콩쿠르와 이듬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쿠세비츠키 더블베이스 콩쿠르에서 연거푸 우승하며 국내외에 이름을 알렸다. 금호



성민제

라이징스타로 선정돼 독주회 등을 가졌으며 현재 독일 뮌헨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피날레곡은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9번’이다. 전석 1만 원. 문의 062-524-508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2015 한중어린이 친선 동요음악회 열린다

## 7일 광주교육대학교 강당

2015 한중어린이 친선 동요음악회가 오는 7일 오후 4시 광주교육대 교육대학원 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음악회는 전남초등 동요작곡연구회(회장 이재두), 광주·전남동요공동체(대표 박경희), 중국 길림성 연변아동음악학회 등이 함께 마련했다.

한국에서는 고다양(광주남초 5), 김지아(송원초4), 나혜린(운남초3) 양 등 18명의 초등학생이 참여하며 칸타빌레 중창단도 함께한다. 이재두·김마리아·김순우·나혜림·박선희씨 등 한국 동요작

곡가들의 작품인 ‘꿈쟁이들’, ‘노래하는 굴렁쇠’, ‘술속 노래책’, ‘봄을 그리는 도화지’,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노래’ 등을 부른다.

중국에서는 룡성시 북안소학교, 연길시 공원소학교, 연길시 건공소학교 학생 20여명이 참여한다.

아이들은 김수·김응·김동하·리천우·림만호씨 등 중국 작곡가들이 만든 ‘술개 그늘 이야기’, ‘산 좋아 하는 좋아’, ‘자랑 많은 우리 연변’, ‘백두산 폭포수야’, ‘진달래로 피고파요’ 등을 들려준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생애주기별 인문정신문화 확산 사업 을 274억 투입

문화체육관광부의 올해 생애주기별 인문정신문화 확산 사업이 예산과 사업 규모를 대폭 늘려 시행된다.

문체부는 ‘문화융성’ 정책기조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인 인문정신문화 확산 프로그램에 올해 지난해 대비 62% 가량 늘어난 총 274억원을 투입한다.

문체부가 밝힌 올해 사업의 핵심 화두는 ‘소통’으로, ‘세대 간, 이웃 간, 가족 간 이해와 화해를 위한 사업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은퇴한 노·장년층이 청소년, 군인, 소외계층 등과의 인문적 소통을 통해 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인생나눔교실’(30억원), 소외 청년층과 단절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예술캠프’(10억원), 국민의 인문콘텐츠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디지털 인문 프로젝트’(10억원) 등 신규 사업을 마련했다.  
지난해 시행해온 ‘길 위의 인문학’과 ‘이야기 할머니’ 사업, ‘병영독서 활성화’ 사업 등 후평을 받았던 정책 사업들도 각각 확대해 시행한다. /연합뉴스

착하고 정직한 먹거리를 위해  
직접 검증하다!

# 먹거리 X파일

매주 금요일 밤 11시

MC 김진 채널A기자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해남 영암 진도 장흥

스카이라이프 13

IPTV 18

채널A

www.ichannelA.com